



박영호 우리회 부회장  
동양구조안전기술 대표이사

## 無題

연구와 실험 등으로 계속 새롭게 개정·보완되는 기준과 설계방법에 대응하고, 부족한 자신을 보충하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느라 정신없이 매일 매일을 보내는 생활 속에서, 어느 날 오후 갑작스러운 원고부탁의 전화 한 통화는 나를 상당히 당혹스럽게 했다. 글 쓰는 재주가 없어 건축과 하고도 건축구조를 택하여 야만 했는데 무엇을 써야 할런지 고민하다가 그저 생각나는 대로 몇 자 정리하여 적어 보기로 했다.

먼저 후배들에게 건축구조가 인기 없는, 다시 말해 먹고 살기가 힘든 직종이 되어버린 지금의 상황에 대해 무척이나 미안한 생각이 든다.

핑계일지도 모르겠으나 먹고 살기가 바빠서 열심히 자기 일에만 치중하다 보니 어느 사이엔가 목소리 큰 전문분야는 나름대로 제 몫을 차지하고 그렇지 못하였던 전문분야(건축구조포함)는 속된 말로 찬밥신세로 전락하여 건축구조를 하고자하는 우수한 인재들이 하나 둘 떠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현재 회장단 및 일부 기술사무소를 경영하는 젊은 층들이 자기의 소중한 시간과 재원을 마련하여 나름대로 자신과 후배들을 위하여 건축구조기술사 몫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비전문가에게도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싣듯 맡기는 작금의 세태에 좀 더 유능한 인재를 건축구조기술자로 영입하여 귀중한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양질의 기술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초석이 되리라 여겨져 고맙게 생각된다. 그리고 비구조전문가 및 유능하지 못한 전문가의 판단으로 일어날 수 있는 대형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건축구조 교수와 이를 염려하는 모든 분야의 사람의 동참을 기대해본다.

나 자신도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건축구조를 가르치고 있다. 가르치다 보면 나 자신이 모르는 사실이 발견하고, 다시 확인 후 가르치곤 한다. 교수라고 하여 관련 지식에 달인은 아니다. 다만 끊임없이 자기개발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소수의 교수들이 산업계와 야합하여 자신의 이권에 따라 업무(설계·시공입찰공사 심사 등)를 결정한다는 소문 아닌 소문을 들으면, 이는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건설분야에서 총체적인 야합의 기형어인 것 같아 왠지 서

글픈 생각이 든다. 사태가 오죽하였으면 교수가 죽어 옥황상제에게 갔더니 “너의 죄값은 다시 지상으로 내려가 너의 연구실에 있는 책을 모두 읽고 오는 것이다”라는 유머까지 나돌고 있게 되었을까 생각하며, 아무리 주위의 유혹이 많더라도 이러한 죄값을 받는 교수가 없기를 기대해 본다.

얼마 전 A라는 기술사무소(이하 A-사)가 건축설계사무소와 구조계산용역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건축주가 구조계산용역을 B라는 기술사무소(이하 B-사)에서 하도록 건축설계사무소에 통보하여 부득이 용역계약을 취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A-사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이 경우 각 사의 소장은 입장을 바꾸어 보다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기본은 조금씩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칼자루를 쥐고 있는 B-사 소장이 건축주에게 이 프로젝트의 기득권이 A-사의 소장에게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다고 양보하는 것이 우선이고, 차선은 양사 소장이 적정한 비율로 협의하여 결정·수행하는 방법도 생각 할 수 있겠다. 만약 B-사 소장이 욕심을 부려 독식한다면, B-사 소장 역시 언젠가는 그이상의 A-사 소장 입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장기불황의 늪에서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 경영의 어려움 또한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로 인하여 동물의 본능인 살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남의 것(타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 프로젝트를) 약탈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는 것 같다. 물론 살아남기 위한 행위라 어쩔 수 없다고는 하나, 인간이기에 그것도 최고의 기술사이에 스스로 이러한 행위는 억제되어야만 하는 게 아닐까? 우리 건축구조기술사들만이라도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이 무엇보다도 우선한다면 무지갯빛 청사진을 기대해 볼만한 것이다.

세상만사가 다 그러하듯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이다. 인생이란 무대에 잠깐 그것도 아주 잠시 잠깐 등장하여 말은바 배역을 다하고 무대 뒤로 내려가는 우리 모두의 평가는 후세(후배)라는 관객들의 몫이다. 모조로 “나쁘지 않았다”라는 후배들의 평가를 듣도록 하기위하여 열심히 자기의 배역에 최선을 다해보자. **KSEA**